

# 주간 통일정세

2017-12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3.18	北 “여명거리는 만리마 고향”...무한 속도전 강요(연합뉴스) 北최룡해, 트랙터공장 시찰...“전투목표 앞당겨 점령”(연합뉴스)
	3.19	北김정은, 신형 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 참관(연합뉴스)
	3.20	“北 무기개발기관 제2자연과학원, 국방과학원으로 개칭”(연합뉴스)
		김영남, 이란 대통령에 새해 축전(연합뉴스)
		김영남, 튀니지 대통령에 튀니지 국경절 61돌 축전(연합뉴스) 김일성 주석 함경남도 현지지도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3.21	김정은, 축산기지 건설 근로자들에 감사인사(연합뉴스)
		김정은, ‘비전향 장기수’ 최하중 아흔 번째 생일에 생일상 하사(연합뉴스)
		보건성 의학연구원·김책공업종합대학, 대기환경측정기 개발(연합뉴스)
		北매체,朴소환일 “박근혜 종말은 역사의 심판”(연합뉴스) 北매체 “혁명원칙 고수는 생사존망 문제”...“체제사수” 강조(연합뉴스)
	3.22	北,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경제·대외정책 주목(연합뉴스)
		北, ‘빨치산’ 최현 띄우기...아들 최룡해 위상 높아지나(연합뉴스)
		北, 과학기술자 띄우기...“진정한 혁명가·숨은 애국자”(연합뉴스)
	3.23	北, 김정은 증조부 ‘반일단체’ 결성 100돌 대대적 기념(연합뉴스)
		박봉주 北총리, 테러피해 영국에 전문...“온갖 테러 반대”(연합뉴스) 北 “보수 재집권 막아야”...南 대선 개입 노골화(연합뉴스)
	3.24	“北 최선희, 푸틴 자문위원 만나...다자회담 필요”(연합뉴스)
北,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 9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연합뉴스)		
경제	3.20	한국·북한 경제력 48배·기대수명 12년 격차(연합뉴스)
		말레이 경찰 “말레이내 北군장비업체, 10년 넘게 매출 없어”(연합뉴스)
	3.21	안보리 대북제재 ‘역행’ 中, 단둥-평양 전세기 신규취항 허가(연합뉴스)
3.22	“러, 평양행 환승 항공권 판매 중단...고려항공 퇴출 조짐”(연합뉴스)	
사회 문화	3.18	北 평양 순안공항 서비스 기준미달...“최악의 공항”(연합뉴스)
	3.19	北 작년 최우수 과학자·기술자 6명 선정(연합뉴스)
		평양시바독원, 봄철어린이바독경기 개최 예정(연합뉴스)
3.20	“北당국이 자랑하는 흥남비료,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연합뉴스)	

외교 국방		'신년사 관철 전투' 北광부 6명, 강도 무너져 사망(연합뉴스)
	3.21	北 국제스포츠행사 줄이어...내달 6·7일 남북대결도(연합뉴스)
		"北 양귀비밭 다시 늘려... 석탄수출 막히자 마약 선택"(연합뉴스)
		北, 1만여쪽 '조선문학전사' 집필... "南 작품도 취급"(연합뉴스)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학교 새로 건설(연합뉴스)
	3.22	북한찬양 전단 잇따라 발견... "풍선에 넣어 보낸 것"(연합뉴스)
		"숙청당할라... 北에서 자식 직업 간부보다 과학자 선호"(연합뉴스)
	3.23	"北, 여명거리 건설비용 주민에 부담... 돼지·장갑 각출"(연합뉴스)
	3.18	"北 도발 감행하면 2차대전 후 최악의 전쟁 된다"(연합뉴스)
		北신문, 美 새 대북정책 검토에 "중국적 파멸" 위협(연합뉴스)
	3.19	北, 新로켓엔진 사진 공개... "화염 질어지고 보조엔진 추가"(연합뉴스)
		北, '美본토 겨냥' ICBM 엔진 공개... 보조엔진 달아 안정성 높여(연합뉴스)
		北, 신형 고출력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ICBM 발사 예고(연합뉴스)
		北 "정권교체 이뤄졌지만 美 대북정책은 불변" 비난(연합뉴스)
		말레이 경찰 "김정남 암살 용의자 더 있다... 주요인사도 포함"(연합뉴스)
	北선전매체, 칼빈스호·B-1B 타격 가상영상 공개(연합뉴스)	
	3.20	北, 이라크전쟁 발발일 맞아 "美대테러전은 침략전쟁"(연합뉴스)
		"北 핵탑재 ICBM 개발 가까워질수록 선제타격 태세 갖춰야"(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 北미사일 발사 비난(연합뉴스)
		北신문 "대미 핵억제 조치 연속 취할 것"... 추가도발 시사(연합뉴스)
		北매체 "美, 북한을 해킹범죄국으로 몰아" 비난(연합뉴스)
北, '전략적 인내 끝났다'는 美틸러슨에 '근원 모른다' 비난(연합뉴스)		
"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 이행보고서 제출"(연합뉴스)		
말레이 경찰 "2011년 북한산 軍 통신장비 적발해 반송"(연합뉴스)		
北 ICBM 엔진·단분리 기술 상당 수준... 대기권 재진입이 관건(연합뉴스)		
국방부 "北 로켓엔진 성능, 의미 있는 진전 평가"(연합뉴스)		
3.21	백악관 "트럼프, 틸러슨 美국무와 '北 고출력엔진시험' 논의"(연합뉴스)	
	"中, 북한 '가상의 적' 규정... 접경지역 군사력 강화"(연합뉴스)	
	러, 한미 대북제재에 어깃장 놓나... 北노동자 수용 제도화(연합뉴스)	
	'北 우방' 베트남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대북제재 '고삐'(연합뉴스)	
	"북한, 말레이서 김정남 암살사건 독자조사 착수했다"(연합뉴스)	
	IAEA "北, 우라늄농축 영변핵단지 규모 수년간 배로 늘려"(연합뉴스)	
	北매체 "신형 로켓엔진, 불출기만 봐도 성공 여부 알 것"(연합뉴스)	
	美 "北실험 신형 고출력 엔진, 결국 ICBM에 사용 전망"(연합뉴스)	

3.22	美백악관 “北위협 대응 새로운 외교-안보-경제적 조치 모색”(연합뉴스)
	최명남 北 제네바 차석대사 “美 추가제재 두렵지 않다”(연합뉴스)
	美 백악관 “대북정책 새 시각 필요…리뷰 결과 곧 나올 것”(연합뉴스)
	美의회 ‘北 자금줄 완벽차단 추진…’초강력’ 제재법 발의(연합뉴스)
	北 “트럼프 정부, 노골적 침략기도…수수방관 않을 것”(연합뉴스)
	北 “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와 닮음꼴…인내 더일찍 끝냈어야”(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북한식당 영업중지…김정남 암살 유탄 맞았나(연합뉴스)
	불가리아,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제출…“北대사관 직원 감축”(연합뉴스)
	北, 원산서 미사일 1발 발사…공중폭발한 듯(연합뉴스)
	美태평양사령부 “北 미사일, 발사 후 몇초만에 폭발”(연합뉴스)
3.23	美하원 외교위원장 “새 대북제재법 상당한 효과 있을 것”(연합뉴스)
	美, 北에 “도발적 행동·선동적 수사 자제해야” 경고(연합뉴스)
	美, 北인력 고용시 제재 추진…개성공단 재개에 ‘중요 변수’(연합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북핵 강력조치 불가피 공감 확산”(연합뉴스)
	美국방 부장관 “北위협이 톱이슈…대북정책 하향식 전환”(연합뉴스)
	대북 비난수위 높이는 美 의회…“구제불능·전쟁광”(연합뉴스)
	“인도, 유엔 결의 11년만에 대북 무기거래 금지 조치”(연합뉴스)
	말레이경찰 “北, 김정남사건 말레이내 독자조사는 불법”(연합뉴스)
	북한 외교관들 해외 불법행위에 잇달아 ‘철퇴’(연합뉴스)
	北, 유엔사무총장에 “한미훈련 위협성 환기” 요구 서한(연합뉴스)
3.24	국방부 “발사실패 北미사일 분석에 시간 필요”…무수단급 추정”(연합뉴스)
	美 “北, 수일내 추가 핵실험 가능성…美핵정찰기 일본 급파”(연합뉴스)
	터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후원 개인·기업 자산동결”(연합뉴스)
	北, 드론 격추훈련 첫 실시…대북정보유입 차단 의도(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3.16	여명거리 건설장 공개활동	황병서, 김정관, 마원춘	
3.19	새형의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참관 공개활동	리병철, 김정식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3. 19.

##### ■ 北김정은, 신형 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 참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보시였습니다"고 보도함.

2017. 3. 21.

##### ■ 김정은, 축산기지 건설 근로자들에 감사인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근로자들 15명에게 감사인사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21일 보도함.

##### ■ 김정은, '비전향 장기수' 최하종 아흔 번째 생일에 생일상 하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전향 장기수' 최하종의 아흔 번째 생일인 21일 그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최 씨가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시기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그 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지만, 36년간 혁명가의 지조를 꿋꿋이 지켜 싸웠다"고 선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3. 18.

##### ■ 北최룡해, 트랙터공장 시찰...“전투목표 앞당겨 점령”(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금성 트랙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최룡해가) 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

고 있는 노동계급을 고무해 주었으며 청년들이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자력자강의 보검으로 생산 전투의 앞장에 설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보도함.

2017. 3. 20.

■ **김영남, 이란 대통령에 새해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력(曆)으로 새해(누르즈·Nowruz)인 20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새해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봉주 내각 총리와 리용호 외무상도 이날 예샤크 자한기리 이란 수석부통령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을 보냄.

■ **김영남, 튀니지 대통령에 튀니지 국경절 61돌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튀니지의 국경절 61돌을 기념하는 축전을 베지 카이드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2017. 3. 23.

■ **박봉주 北총리, 테러피해 영국에 전문…“온갖 테러 반대”(연합뉴스)**

-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가 테러공격으로 런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전문이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에게 전문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함.

2017. 3. 24.

■ **“北 최선희, 푸틴 자문위원 만나…다자회담 필요”(연합뉴스)**

- 북한내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문위원을 만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RFA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 "최선희 국장이 15일 평양에서 안톤 클로코프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 소장과의 만나 한반도 안보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함.

- RFA는 "최 국장이 클로코프 소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미북 양자회담과 6자 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미뤄 러시아 측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함.

## 다. 공식행사

2017. 3. 20.

### ■ 김일성 주석 함경남도 현지도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함경남도 현지도 60주년을 맞아 기념보고회가 김성일 함경남도 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함흥대극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함.

2017. 3. 22.

### ■ 北,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경제·대외정책 주목(연합뉴스)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가 열리는 4월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이기도 함.

2017. 3. 23.

### ■ 北, 김정은 증조부 '반일단체' 결성 100돌 대대적 기념(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증조부 김형직이 항일단체 '조선국민회'를 결성한 100돌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히 개최함. 김형직의 조선국민회 결성 100돌을 기념하는 중앙보고회가 지난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23일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남·최태복·리명수·김평해·오수용·최부일·로두철·조연준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고 중앙방송은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1면에 중앙보고회 기사와 사진을 보도함. 신문은 2~4면에도 조선국민회 결성 100돌을 기념하고 김형직을 추모하는 기사를 게재함.

2017. 3. 24.

■ **北,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 9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전방위 대북제재 속에서 처음 개최한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을 올해 9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중앙통신은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7'로 명명된 이번 축전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통신은 "축전기간 군용 및 민용비행기들의 비행술 시범출연, 낙하산 강하기교, 모형항공기들의 조종비행, 유람비행 등이 있게 된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들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관광발전에 관한 토론회 그리고 금강산, 마식령지구 관광도 예견되어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다른 국가들과의 친선과 단결,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3. 20.

■ **“北 무기개발기관 제2자연과학원, 국방과학원으로 개칭”(연합뉴스)**

- 북한이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기관인 '제2자연과학원'을 옛 이름인 '국방과학원'으로 최근 다시 공식 개칭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소식을 전하며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엔진이라고 보도함.
- 평양 용성구역에 자리한 국방과학원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직속 기관으로, 미사일 개발을 핵심 분야로 신형무기 연구·개발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2017. 3. 21.

■ **보건성 의학연구원·김책공업종합대학, 대기환경측정기 개발(연합뉴스)**

- 보건성 의학연구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협동해 북한 실정에 맞게 대기환경측정기를 개발·완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이번에 새로 제작된 대기환경측정기는 원가가 적게 들면서 미량 농도상태의 대기오염 물질들을 높은 수준에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3. 18.

■ **北 “여명거리는 만리마 고향”...무한 속도전 강요(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수소탄을 백발, 천 발 쏜 것보다도 더 위력한 대승리가 련이어(연이어) 이룩된 련명거리(여명거리) 건설장이야말로 만리마속도 창조의 고향"이라고 보도함.

2017. 3. 21.

■ **北매체, 축소환일에 “박근혜 종말은 역사의 심판”(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인 21일 촛불집회를 '결산'하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은 만고죄악에 대한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전민항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詳報·사안을 상세하게 풀어쓴 보도)'를 발표해 이같이 밝힘.
- 촛불집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민항쟁'이었다며 "반인민적 악정과 사대매국, 동족 대결만을 일삼아온 독재의 원흉 (중략) 박근혜 역도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평가함.

■ **北매체 “혁명원칙 고수는 생사존망 문제”...‘체제사수’ 강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실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이 최후 계선에 이른 오늘날 혁명적 원칙 고수는 혁명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매우 첨예한 문제"라고 보도함.

- 이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보다 더 엄혹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오직 혁명의 수뇌부만을 믿고 (중략) 전우가 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편단심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거론하고, "적들의 개혁, 개방 강요 책동은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에 대한 전복 책동"이라고 비난함.

### 2017. 3. 22.

#### ■ 北, '빨치산' 최현 띄우기...아들 최룡해 위상 높아지나(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최현의 삶을 다룬 '소개편집물'을 지난달에만 2차례 방영한 데 이어 이달 21일에도 방영함.
- 해당 영상에서 해설자는 최현에 대해 "오직 총과 함께 살면서 일편단심 수령님(김일성)의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총대로 당과 혁명을 충직하게 받들어 왔다"고 설명함.
- 북한 TV가 그동안 다른 빨치산 출신과 고위 간부들의 삶을 다룬 영상물도 내보냈지만, 최현과 같이 짧은 기간에 자주 부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 ■ 北, 과학기술자 띄우기...“진정한 혁명가 숨은 애국자”(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인재와 강국'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정은) 원수님의 념원(염원)은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을 소개함.
-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8일 로켓엔진 지상 분출시험 참관 후 과학기술자들을 등에 업은 사실을 거론하며 "발동기 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며 고심 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중략)"라고 당시 상황을 소개함.
- 신문은 그러면서 "전체 인민이 이렇게 과학기술을 자기 가사로 여기고 너도나도 인재 강국화의 시대적 흐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선전함.

### 2017. 3. 23.

#### ■ 北 “보수 재집권 막아야”...南 대선 개입 노골화(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반동보수 세력의 도전을 짓밟개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수패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때 비로소 남조선에 진정한 자유의 봄이 오게 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겨냥해 "아직도 재집권을 꿈꾸는 열간망둥이(열간이)들이 있다"며 "재집권 망상을 실현하려고 날뛰는 자들도 결코 민심의 준엄한 철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가로막는 보수세력의 완전 청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걸고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2017. 3. 20.

- **한국 북한 경제력 48배·기대수명 12년 격차(연합뉴스)**
  -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한국이 82.4년으로 세계 12위였고 북한은 70.4년으로 157위임.
  -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9천290억 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14위였고 북한은 400억 달러로 115위임.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3. 20.

- **말레이 경찰 "말레이내 北군장비업체, 10년 넘게 매출 없어"(연합뉴스)**
  -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내 군장비업체가 실제로는 10년

- 이 넘도록 단 한 점의 제품도 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 당국자가 말함.
- 앞서 북한은 200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인과 합작해 '인터내셔널글로벌시스템'이란 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사실상 북한인 주주와 이사가 경영하는 이 기업은 이후 말레이시아 군과 경찰을 상대로 군사용 통신장비 납품을 시도하는 등 판촉활동을 벌였으나 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2012년 폐업함.
  - 북측은 그 직후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인터내셔널 골든 서비시스'란 또 다른 합작업체를 세웠지만 역시 매출을 내지는 못했다고 할릿 청장은 말함.

### 2017. 3. 21.

#### ■ 안보리 대북제재 '역행' 中, 단둥-평양 전세기 신규취항 허가(연합뉴스)

- 21일 단둥 랑터우(浪頭) 국제공항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증가에 맞춰 28일부터 단둥-평양 왕복 전세기를 운항기로 함.
- 북중접경 도시인 단둥과 북한 수도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 취항은 사상 처음임.
- 북중접경의 한 관측통은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2321호 결의 이후 자금난을 겪는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아 합법적인 돈벌이인 셈"이라고 말함.

### 2017. 3. 22.

#### ■ “러, 평양행 환승 항공권 판매 중단…고려항공 퇴출 조짐”(연합뉴스)

-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가 최근 북한 고려항공과 제휴상품인 평양행 환승 항공권 판매를 중단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현지 언론을 인용해 고려항공 측이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을 통한 평양행 환승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탓으로 외국인 승객 감소와 북한의 외화획득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함.
- 방송은 이어 "앞으로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국제항공업계에서 점차 퇴출당할 조짐을 보인다"고 전망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7. 3. 18.

- **北 평양 순안공항 서비스 기준미달...“최악의 공항”(연합뉴스)**

-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국제공항이 최악의 공항으로 평가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RFA는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7 세계공항상(賞)'의 총 9개 부문에서 순안국제공항이 기준에 미달해 어느 부문에서도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밝힘.
- 스카이트랙스는 순안국제공항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과 비교해 시설과 환경, 서비스 등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함.

2017. 3. 19.

- **北 작년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6명 선정(연합뉴스)**

- 정일철 김책공업종합대 자동화공학부 박사 등 6명이 2016년 최우수과학자·기술자로 선정됐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함.

- **평양시바둑원, 봄철어린이바둑경기 개최 예정(연합뉴스)**

- 평양시바둑원이 오는 21~24일 봄철어린이바둑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함.

2017. 3. 20.

■ **“北당국이 사랑하는 홍남비료,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연일 홍남비료 공장의 생산 성과를 선전하고 있지만, 이 비료가 정작 농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20일 보도함.
-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최근 봄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다양한 비료를 팔고 있지만 홍남비료는 보이지 않는다"며 "홍남비료는 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꿈의 비료'로 통한다"고 전함.
- 한 소식통은 "심지어 홍남에서도 홍남비료를 사용하는 주민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비료 장사꾼들과 일부 홍남비료 공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홍남비료 공장에서 생산 되는 비료는 대부분 군대로 보내지고 있다"고 말함.

■ **‘신년사 관철 전투’ 北광부 6명, 갱도 무너져 사망(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그들은 오늘도 만리마 대진군 대오에 함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올해 1월 사망한 황해남도 은률(은율)광산 광부 6명을 추모함.
- 신문은 이 사고를 '불의의 자연재해'로 표현하면서, 사망자들이 생전에 보인 열의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이들이 위험을 느낀 순간 갱 밖으로 뛰쳐나왔다면 살 수도 있었다며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위구(危懼, 염려하고 두려워함)보다 갱과 생산에 들이닥칠 위기에 대한 걱정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라고 주장함.

2017. 3. 21.

■ **北 국제스포츠행사 줄이어…내달 6·7일 남북대결도(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개최를 준비 중인 국제대회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 컵 대회' 예선리그(4.3~11)와 오는 9월과 10월 각각 열리는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주관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유도선수권대회 등이 있음.
- 북한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릴 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임. 특히 다음 달 6일과 7일 연이틀 아이스하키(강릉)와 여자축구(평양)의 남북대결이 예정돼 있음.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0일 "축구 경기 관람으로 평양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남측 인사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힘.

■ **“北, 양귀비밭 다시 늘려… 석탄수출 막히자 마약 선택”(연합뉴스)**

-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집권 초기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갈아엎었던 양귀비밭들이 새로 개간되고 있다"고 발언함.
- 이어 그는 "북한이 양귀비밭을 늘리는 것은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마약생산과 밀매 등 불법활동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앞서 북한의 대외보협총국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마약과 위조지폐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北, 1만여쪽 ‘조선문학전사’ 집필…“南 작품도 취급”(연합뉴스)**

-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3년간의 작업 끝에 문학총서 '조선문학전사'를 집필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21일 보도함.
- 매체는 이날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조선문학전사' 집필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면서 "조선문학전사는 우리나라의 원시 고대 문학으로부터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학유산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서술한 문학총서"라고 소개함.
- 매체는 "전 30권으로 된 조선문학전사는 그 포괄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분량이 만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 남조선 문학작품들도 포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학사 전반을 대표하는 귀중한 민족적 재보로 완성되었다"고 밝힘.

■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학교 새로 건설(연합뉴스)**

- 남포시 천리마구역 40여개의 교실에서 학생 약 2천명이 공부할 수 있는 4층짜리 학교가 새로 건설됐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함.

2017. 3. 22.

■ **북한천양 전단 잇따라 발견…“풍선에 넣어 보낸 것”(연합뉴스)**

- 지난 19일 구미시 도개면 밭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와 핵 보유를 찬양하는 5종류의



- 전단 20여장이 나옴. 칠곡군에서는 8일 1장, 5일 3장이 각각 발견됨.
- A4 용지 4분의 1 크기인 전단은 김정은과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매년 3~7월 바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불 때 전단을 넣은 대형 풍선을 띄운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임.

■ **“숙청당할라·北에서 자식 직업 간부보다 과학자 선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숙청을 앞세운 공포정치로 북한의 부모들이 자식을 당의 간부보다는 과학자로 키우길 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김정일 시대만 해도 북한의 학부모들은 자식이 군사 복무를 마치고 당 기관이나 사법기관, 무역기관에 들어가 출세하기를 원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과학자로 키우고 싶어한다"고 말함.
- 자강도의 소식통도 "자식을 과학자로 키우려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정치계는 숙청될 위험이 크나 과학기술은 정치의 영향을 적게 받고 어느 제도 아래서든 가진 재능을 다 써먹을 수 있다"고 밝힘.

2017. 3. 23.

■ **“北, 여명거리 건설비용 주민에 부담…돼지·장갑 각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평양시내 여명거리 완공을 앞두고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자금 지원을 강요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북한 북부 국경 지역 소식통은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를 통해 RFA에 "여명거리 건설 지원을 위해 돈을 바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잘사는 동네는 중국 돈으로 20~30 위안(3천300~4천900 원)을 내고 돈이 많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돼지 몇 마리, 또는 병어리장갑 수천 켤레 등을 내놓기도 한다"고 말함.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김정은은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고층아파트 건설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3. 18.

#### ■ “北 도발 감행하면 2차대전 후 최악의 전쟁 된다”(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군사행동 불사를 포함한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가운데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언함.
- 그는 북한 김정은을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만약 김정은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총격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발언함.
- 특히 "그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국지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2차 대전 당시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함. 킨징어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함.

#### ■ 北신문, 美 새 대북정책 검토에 “중국적 파멸” 위협(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개인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조선(대북) 정책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력 사용, 다방면적인 군사·외교적 압박 강화, 강도 높은 경제제재, 제도 전복, 남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 소동의 도수를 높이기 전에 반세기 이상의 제재로 인한 특실 관계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행동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며 제재 무용론을 주장함.
-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괴뢰들이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미국과 한동아리가 되어 핵무기를 끌어들이며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길로 나간다면 상전과 똑같은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2017. 3. 19.

■ 北 “정권교체 이뤄졌지만 美 대북정책은 불변” 비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총과산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내던지지 못하고 집요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이러한 망동(대북 압박정책)은 용납될 수 없는 난폭한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함.
- 논평은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국제법 규범들은 주권존중과 평등을 국제관계발전의 근본바탕으로, 모든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바로 이러한 주권존중과 평등의 이념이 티끌만큼도 없는 날강도, 불량배의 정책"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체의 정당방위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함.

■ 北 “美 전략자산 우리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 위협(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이 한미훈련에 참가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소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때에 놈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제의 모든 전략자산은 우리 군대의 강위력한 초정밀 타격수단들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릴다면 우리 군대의 초정밀타격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에서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보도함.
- 이어 "우리의 핵 보유에 대처하기 위한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연습이라고 떠드는 것은 저들의 침략야망을 합리화해보려는 술책"이라며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함.

2017. 3. 20.

■ **北, 이라크전쟁 발발일 맞아 “美대테러전은 침략전쟁”(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20일 이라크 전쟁 발발(2003년 3월 20일) 14년을 맞아 미국 주도의 대(對)테러전을 '반인륜 범죄'이자 '새로운 침략전쟁'이라 주장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반테러전(대테러전)은 전대미문의 국가테러 행위, 반인륜 전쟁범죄이다'라는 제목의 '고발장'에서 대테러전을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을 뒤집어엎고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흉악무도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함.
- 중앙통신은 8천200여 자 분량의 '고발장'을 통해 미국이 수행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개입, 이슬람국가(IS) 대두,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와 쿠바 관타나모 기지 인권유린 논란 등을 열거하며 미국을 비난함.

■ **“北 핵탄재 ICBM 개발 가까워질수록 선제타격 태세 갖춰야”(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소속 테빈 누네스(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운반 능력 개발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일종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더욱 갖춰야 한다"고 발언함.
- 그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북한은 '완전히 고삐 풀린'(completely unhinged) 정권"이라며 대북 선제타격 옵션 불가피성을 강조함.
- 누네스 위원장은 또 "틸러슨 장관이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해 기쁘다"면서 "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터지도록 내뉘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발언함.

■ **트럼프 “김정은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北미사일 발사 비난(연합뉴스)**

- 19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 마라라고에 머물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함.
- 백악관 풀 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김정은)는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北신문 “대미 핵억제 조치 연속 취할 것”…추가도발 시사(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근원'이란 제목의

- 논설에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한사코 고집하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강력한 핵 보유가 북미 관계를 종결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절대적 담보'라고 주장함.
  - 특히 최근 북한이 감행한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전략군의 미사일 발사훈련이 미국의 '항시적인 침략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주장함.

#### ■ 北매체 “美, 북한을 해킹범죄국으로 몰아” 비난(연합뉴스)

- 북한 매체는 20일 미국이 북한을 해킹범죄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사이버(사이버) 공간은 미국이 패권전략실현에서 핵 몽둥이와 딸라(달러)에 못지않게 중시하는 선제공격 수단의 하나"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지난 7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이버 정보센터의 문서 수천 건을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을 향해 "해커 제국, 최악의 불량배국가"라고 비난함.

#### ■ 北, '전략적 인내 끝났다'는 美틸러슨에 '근원 모른다'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7일 서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근원을 모른다"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오바마가 백악관을 떠나는 날까지 입이 닳도록 외워온 (대북)제재 타령을 이제는 틸러슨이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문제는 오바마도 틸러슨도 왜 우리(북한)가 핵무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왜 핵무력 강화에로 나가고 있는지 그 근원을 모르는 데 있다"고 주장함.

2017. 3. 21.

#### ■ 백악관 “트럼프, 틸러슨 美국무와 ‘北 고출력엔진시험’ 논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 손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 로켓엔진 시험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 그러면서 그는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동안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 3. 22.

■ **美백악관 “北위협 대응 새로운 외교-안보-경제적 조치 모색”(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은 중대하고, 또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가안보회의(NSC)의 최신 입장을 전달하겠다고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당시 밝힌 입장과 거의 같은 것임. 틸러슨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남 北 제네바 차석대사 “美 추가제재 두렵지 않다”(연합뉴스)**

-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북한은 미국이 추가로 대북 제재를 가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최 차석대사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가속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속화에는 선제타격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美 백악관 “대북정책 새 시각 필요…리뷰 결과 곧 나올 것”(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 담당 수석국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당장 지금은 알려줄 게 많지 않지만, 대북 정책

리뷰(검토)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어떤 것이 될지는 추가적인 리뷰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함.

- 포드 국장은 "북한은 억제되지 않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미국에 대륙간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테스트 프로그램을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하며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의 위협을 봉쇄하려던 과거의 접근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대북 정책은 모든 범위의 가능성을 매우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광범위한 리뷰가 요구된다"고 지적함. 그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이 정책 검토의 일선에 선 사람 중 하나로,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대북 정책 리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이 리뷰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와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 美의회 '北 지금줄 완벽차단' 추진... '초강력' 제재법 발의(연합뉴스)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법안(H.R.1644)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 법안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를 추가함.
- 법안은 아울러 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시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함.

#### ■ 北 "트럼프 정부, 노골적 침략기도...수수방관 않을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호전광들은 우리의 초강경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박과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핵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전략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은 같은 날 '자멸을 청하는 어리석은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 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밝힘.

■ 北 “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와 닮음꼴…인내 더일찍 끝냈어야”(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서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한 데 대해 "더 일찍 끝냈어야 한다"고 응수함. 22일 친(親)중국 성향 봉황위성TV에 따르면 장성철 홍콩주재 북한총영사는 전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그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함.
- 장 총영사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그가 말한 것 중 한 가지는 맞다"며 "바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함. 그는 특히 "더 일찍 끝냈어야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 장 총영사는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대해 발표한 백서와 관련해 "제재에 대해 기본적으로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비합법, 부도덕, 불공정"이라고 발언함.

2017. 3. 23.

■ 美하원 외교위원장 “새 대북제재법 상당한 효과 있을 것”(연합뉴스)

- 미국 하원에 '초강력' 북한 제재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제재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전날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및 노동력 국외 송출 차단, 해외 온라인 상거래 및 어업권 거래 봉쇄 등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함. 이 법안은 대북 제재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 그는 다음 주께 이 법안 심의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소개함.

■ 美, 北에 “도발적 행동 선동적 수사 자제해야” 경고(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16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3일 보도함.
-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북한 원산에서의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 "북한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



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 美, 北인력 고용시 제재 추진...개성공단 재개에 '중요 변수'(연합뉴스)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북한제재법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김정은 정권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줄이 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함.
-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아직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도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법안의 목적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인 만큼 취지만 놓고 보면 5만5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임.

#### ■ 美하원 외교위원장 "북핵 강력조치 불가피 공감 확산"(연합뉴스)

- 미국 하원에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대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며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함.
- 로이스 위원장은 또 윤 장관이 최근 발의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추진 전망을 문의하자 "북한의 다양한 국제 규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규 대북 제재 법안에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조만간 하원 외무위 차원 대북 제재 법안 관련 입법절차를 가속하겠다"고 답함.

■ **미국방 장관 “北위협이 톱이슈…대북정책 하향식 전환”(연합뉴스)**

-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이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 이슈(top priority issue)"라고 말함.
- 워크 장관은 또 대북정책 리뷰와 관련,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상향식이었던 대북정책 입안 방식을 하향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힘.
- "오바마 정부 때까지 북한 정책 입안은 실무 차원에서 먼저 정책을 성안해 차관보, 차관, 부장관, 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그룹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실무적으로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20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함.

■ **대북 비난수위 높이는 美 의회…“구제불능 전쟁광”(연합뉴스)**

- 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에 비난함.
- '김정은은 테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에 나선 포 의원은 "구제불능(incorrigible)인 김정은과 그 앞잡이들이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발언함.
-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전쟁광(war monger)'으로 지칭하며 "이제 북한의 못된 행동을 끝낼 때다", "미국의 가망 없는 대북 유화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함. 또 "미국은 김정은의 전쟁 광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나. 북·중 관계

2017. 3. 20.

■ **“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 이행보고서 제출”(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15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VOA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인용해 "중국은 지난 15일 작성한 2321호 이행보고서를 최근(유엔)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함.

- 유엔 사무국은 유엔 공용어 번역작업을 거쳐 조만간 위원회 웹사이트에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설명함.

2017. 3. 21.

■ “中, 북한 ‘가상의 적’ 규정…접경지역 군사력 강화”(연합뉴스)

- 21일 중화권 언론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군사전문지 칸와이주방무월간(漢和亞洲防務月刊)의 안드레이 창(平可夫) 편집장은 최신호에서 중국군이 최근 내부적으로 북한을 가상의 적 명단에 정식 포함하고 (군사) 배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함.
- 창 편집장은 중국군이 내부적으로 'C국'(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직접 거론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 발전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창 편집장은 중국군이 이 때문에 부대 배치를 조정했다며 3세대 전투기 교체가 가장 느린 지린(吉林)성 공군 21사단의 전투력을 강화했으며 동북지역의 대(對) 한반도 최전방 부대에 조기경보 열기구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3. 21.

■ 러, 한미 대북제재에 어깃장 놓나…北노동자 수용 제도화(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지난 20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페이스북을 인용, "북·러 양국은 지난 17일 평양에서 열린 공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함.
- RFA는 북한 측에서 리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 러시아 측에서는 드미트리 체미첸코 러시아 내무부 이민문제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해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보도함.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3. 19.

### ■ 말레이 경찰 “김정남 암살 용의자 더 있다…주요인사도 포함”(연합뉴스)

- 일간 더스타와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 3명 외에 몇 명 더 추적 중인 인물이 있다"고 발언함.
- 그는 "김정남 암살에 북한 국적자를 비롯해 더 많은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중에는 이른바 '주요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발언함.
- 한편, 할릿 청장은 이미 신원이 밝혀진 용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들을 체포할 것"이라면서 "타국의 정치문제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으나 우리는 관할 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다. 북측이 김정남 살해 사건 해결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 北-말레이, ‘김정남 암살사건’ 공식회담 임박…시신인도 최대관심(연합뉴스)

- 12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북한 내 억류자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취재진에 "북한이 회담시작을 원한다"며 "수일 내에 북측과 공식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아니파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시신을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북한) 정부든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시신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 말레이 ‘김정은도 유가족 신분인정’…김정남 시신 北에 넘겨지나(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언제든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함.
-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남의 신원 확인은 사실상 북한 측에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받을 권리를 인정한 셈이라고 보도함.
-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시신을 누군가에게 인도할 것이다. 시신을 인도받는 주체는 북한 정부가 될 수도,

(김정남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함.

2017. 3. 20.

■ 말레이 경찰 “2011년 북한산 軍 통신장비 적발해 반송”(연합뉴스)

-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 경찰청장은 "쿠알라룸푸르 외곽 끌랑 항구의 세관 당국이 2011년 북한 글로콤이 생산한 군용 통신장비 250kg를 적발했다"고 말함.
- 할릿 청장은 이어 "화물의 수취인은 추적할 수 없었으며, 이 장비는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말함.
- 글로콤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군사용 통신장비 업체로 알려졌으며,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말레이시아에 주소가 등록된 사실이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삼.

2017. 3. 21.

■ ‘北 우방’ 베트남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대북제재 ‘고삐’(연합뉴스)

- 베트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전통 우방인 북한과 더욱 거리를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20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외교회담을 열어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함.
- 베트남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일관되게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대해 온 점을 강조하고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말레이서 김정남 암살사건 독자조사 착수했다”(연합뉴스)

-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공동 수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북한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짐.
- 21일 싱가포르 뉴스 매체 채널뉴스아시아와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김정남 암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여)가 거주했던 쿠알라룸푸르 외곽에서 최근 그의 지인을 찾는 북한 요원들의 모습이 포착됨.
- 익명을 요구한 현지 미용실 점주는 "그들은 가게를 차례로 돌면서 시티 아이샤의 친구들을 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양에서 왔으며, 정치적 음모를 조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2017. 3. 22.

■ **인도네시아 북한식당 영업중지…김정남 암살 유탄 맞았나(연합뉴스)**

- 22일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밝은 북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자카르타 북부 끌라빠가딩 지역에 있는 북한식당인 '평양식당'이 이달 20일부로 영업을 중단함.
- 동남아 외교가에선 김정남 암살 사건의 여파로 북한 공작원들의 인도네시아내 정보 수집장소로 의심받아 온 이 식당이 문을 닫게 된 것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실제 이 식당 2층은 한때 북한 경찰총국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짐.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은 지난달 21일 해당 식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음.

■ **불가리아,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제출…“北대사관 직원 감축”(연합뉴스)**

- 주한불가리아대사관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불가리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직원 감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 대사관은 또 북한이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상업적으로 사용한 문제와 관련, 자국 내 북한 소유 부동산을 외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구리, 니켈, 은, 아연, 조각상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북한에 대한 헬리콥터와 선박 수출을 금지했고, 불가리아 영내를 통과하는 승객과 화물에 대한 통제와 검문을 하고 있으며 자국 항공사에 북한을 상대로 항공기 대여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설명함.

2017. 3. 23.

■ **“인도, 유엔 결의 11년만에 대북 무기거래 금지 조치”(연합뉴스)**

-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물자 거래를 공식 금지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23일 보도함.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지난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직접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의 직·간접적 수출 및 수입을 금지한다"면서

- 탱크와 장갑차량, 전투기 등 군사 물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매체는 보도함.
- 인도 정부의 금수조치는 유엔이 지난 2006년 북한산 무기류의 수출입을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킨 지 11년 만에 취해진 조치임.

#### ■ 말레이경찰 “北, 김정남사건 말레이내 독자조사는 불법”(연합뉴스)

-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최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독자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힘.
-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서류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이는 불법이다"라고 말함.
- 다만 그는 실제로 북측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독자 조사에 착수했는지를 묻자 답하지 않았고,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북한국적자 리정철(47)이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무기거래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루머라고 일축함.

#### ■ 북한 외교관들 해외 불법행위에 잇달아 ‘철퇴’(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라오스, 이집트 등이 외교관 신분으로 등록된 북한 인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추방 조치를 취했다고 전함. 더불어 루마니아, 독일, 폴란드 등지의 북한 대사관이 공관 건물을 임대해 수입을 올려온 관행도 최근 해당국의 규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함.
- 또 불가리아는 최근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수를 줄이는 절차를 밟고 있고 동남아의 한 나라와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자국에 있던 북한 교관단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음.
- 또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당국은 역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있던 북한 유학생 중 핵과 우주 물리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해 귀국 조치하거나 전공을 바꾸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함.

#### ■ 北, 유엔사무총장에 “한미훈련 위협성 환기” 요구 서한(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지난 2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헌장 제9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으로 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위협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주의를

- 환기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힘.
- 서한은 안보리에 지난 6일 한미훈련을 긴급 의제로 토의할 것을 제소했으나 아직 아무런 응대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또 서한은 "유엔현장에 충실할 것을 맹약한 사무총장이 조선(북한)의 진정어린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고 통신은 보도함.

### 2017. 3. 24.

#### ■ 터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후원 개인·기업 자산동결”(연합뉴스)

- 터키 정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한 성명에서 터키 유관 기관들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개인이나 기업에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힘.
- 터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이나 가족 구성원의 터키 출입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성명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산하 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다고 특정한 모든 종류의 제품, 재료, 장비, 기술의 구매와 판매, 이전이 금지됨. 성명은 또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항만과 공항에서 검색하게 된다고 밝힘.

## 바. 군사 및 핵·미사일

### 2017. 3. 19.

#### ■ 北, 新로켓엔진 사진 공개…“화염 짙어지고 보조엔진 추가”(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보시였다"며 1면에 관련 컬러사진 총 8장을 게재함.
- 1면 하단에는 분출시험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도 실림. 시험은 지난해 9월 북한이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됨.
- 다만, 지난해보다 이번에 공개된 로켓엔진의 화염이 한층 진해진 듯한 모습이 보임. 엔진의 중심 불기둥 주변에는 작은 불기둥이 3개 정도 더 있음.



■ **北, '美본토 겨냥' ICBM 엔진 공개...보조엔진 달아 안정성 높여(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서해 위성발사장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에서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했다고 보도함.
- 북한이 공개한 고출력 엔진은 사거리 5천500km 이상의 ICBM 엔진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력 80tf의 엔진 4개를 묶어 ICBM 1단 추진체를 만들면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엔진 연소시험을 높이 평가하고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北, 신형 고출력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ICBM 발사 예고(연합뉴스)**

- 김정은은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국방과학원이 자체적으로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함.
-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연소실의 추진력 특성과 '터빈 뿔뿔(터빈 펌프) 장치', 조절계통, 각종 번들의 동작 정확성과 구조적 안정성·민음성을 비롯한 고출력 엔진의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들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지표들은 목표치에 도달함.
- 김정은은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로켓 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 뽑고 명실공히 개발창조형 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바뀐) 주체적인 로켓 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발언함.

■ **北선전매체, 칼빈슨호·B-1B 타격 가상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19일 '폭제의 핵을 정의의 핵마치(망치)로!'라는 제목으로 2분 50초 분량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함.
- 영상은 칼빈슨호로 보이는 사진 위에도 가상의 조준 표시와 함께 향모가 불타는 효과를 덧입힘.
- 여성 내레이터는 "바다의 핵 항공모함은 목줄기(목덜미)에 비수가 박혀 꿈틀거리다 나가 너부러질 변태 동물일 뿐"이라고 발언함.

2017. 3. 20.

■ **北 ICBM 엔진·단분리 기술 상당 수준…대기권 재진입이 관건(연합뉴스)**

- 20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추진 시스템, 단 분리 등 ICBM 핵심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대기권 밖으로 나간 ICBM이 다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재진입(re-entry)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것은 ICBM 추진 시스템에 해당하는 엔진임. 1998년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의 추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 그러나 북한은 ICBM의 비행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

■ **국방부 “北 로켓엔진 성능, 의미 있는 진전 평가”(연합뉴스)**

-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과 관련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같이 밝힌 뒤 "정확한 (엔진) 추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함.
-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엔진이 지난해 9월 시험한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고출력 엔진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2017. 3. 21.

■ **IAEA “北, 우라늄농축 영변핵단지 규모 수년간 배로 늘려”(연합뉴스)**

-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수년간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배로 늘렸다고 밝힘.
- 아마노 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의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이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핵무기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아마노 총장은 위성 이미지를 통해 감시한 결과 2010년 이래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변 핵단지의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고 주장함.
- 미국과 중국 당국은 북한의 원자폭탄 수를 40개로 추정한다고 WSJ은 설명함.

■ **北매체 “신형 로켓엔진, 불줄기만 봐도 성공 여부 알 것”(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1일 '주체적인 로켓 공업의 새로운

- 탄생을 선포한 대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우리 공화국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 발동기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연구 제작한 데 이어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는 거대한 성과를 이뤘다"고 보도함.
- 이 매체는 "시험 결과 모든 계통의 기술적 지표가 예정 값에 정확히 도달해 안전하게 유지되었으며 구조적 믿음성도 충분히 보장됐다"며 "아마 세계의 로켓트 분야 과학자도 우리 사진들에서 나타나는 불줄기 색과 모양만 보고도 성공 여부를 어렵지 않게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조선의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며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시며 비범한 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주장함.

#### ■ 美 “北실험 신형 고출력 엔진, 결국 ICBM에 사용 전망”(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지상분출시험을 했다며 선보인 신형 고출력 엔진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미 국방부가 북한의 엔진 분출시험을 분석 중"이라고 함.
- ICBM보다는 위성 발사 로켓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옴. 미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고에너지 추진체를 쓰는 이 핵심 엔진은 약 16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탄도 미사일보다는 위성 발사 비행체에 더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함.

2017. 3. 22.

#### ■ 北, 원산서 미사일 1발 발사...공중폭발한 듯(연합뉴스)

- 국방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이어 "미사일 종류 등 기타 사항은 추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함.
-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솟구치지 않고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됨. 발사대를 벗어나는 순간 곧바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됨.

■ **美태평양사령부 “北 미사일, 발사 후 몇초만에 폭발”(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 사령부 데이브 벤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강원도) 갈마 부근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를 감지했다"고 밝힘.
-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몇 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함.

2017. 3. 23.

■ **국방부 “발사실패 北미사일 분석에 시간 필요”…무수단급 추정(연합뉴스)**

-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전날 발사를 시도한 미사일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분석 중"이라고 답함.
- 문 대변인은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보자산을 종합해 한미 군이 분석하고 있다"며 설명함.

2017. 3. 24.

■ **美 “北, 수일내 추가 핵실험 가능성…美핵정찰기 일본 급파”(연합뉴스)**

- 북한이 며칠 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폭스뉴스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함. 폭스뉴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정보를 입수한 미 국방당국자를 인용, 이같이 전함.
-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운 갱도 굴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다"며 "핵실험은 이르면 이달 말 실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추가 핵실험을 위해서는 몇 개의 추가 장비 이동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일본에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WC-135는 수일 내에 한반도 인근을 정찰할 예정이라고 또다른 당국자는 밝힘.

**■ 北, 드론 격추훈련 첫 실시...대북정보유입 차단 의도(연합뉴스)**

- 북한 내부 사정을 취재하는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는 RFA에 북한 당국이 영공에 침입한 무인기를 감시·신고·격추하는 민군 합동훈련을 이달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함.
- 북한 북부 지역의 소식통은 아시아프레스에 "민군 방위 무력은 모든 화력장비를 동원해 (무인기를) 격추할 것에 대한 지시가 전달되었다"고 말함.
- 북한 당국은 무인기를 '발견 즉시 격추'하라고 지시하고 실탄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아시아프레스는 밝힘.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3.19		美국무 "한·일 핵무장 불용 입장 변함없지만 모든 옵션 검토"(연합뉴스)
	3.20		조셉윤 "틸러슨은 매우 분명한 사드 메시지냈다"(연합뉴스)
	3.21		美하원의원 "한국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해야"(연합뉴스)
	3.24	'北핵심 타격' 한미 키리졸브훈련 종료...미군 1만3천명 참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3.20		韓 '사드보복' WTO제기에 中,정부관계 없는 '민익'따른 결과 주장(연합뉴스)
	3.21	외교부 "한미 6자수석, 중국과의 대북공조 중점 협의"(연합뉴스)	
	3.22		중국前외교차관 "한중 간 비는 오지만 거세지지 않아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3.21	외교부 "주일대사 위안부합의 준수 발언은 정부입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3.24		러 외무부 "사드 한국 배치 심각한 역내 불안 요소" 거듭 비판(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3.17		중외교부 "6자회담, 북한문제에 효과적"…美에 정식 제안할 듯(연합뉴스)
		틸러슨 美국무 "대북 전략적 안내 끝"…中 사드보복 그만두라(연합뉴스)	
	3.18	미중 북핵해법 평행선…中"대화해야" vs 美,北과 대화 언급안해(연합뉴스)	
	3.20		중외교부 "미국, 대만에의 무기판매 민감성·위협성 인식해야"(연합뉴스)
	3.21		왕이 中외교부장 "미중 충돌은 모두에 실패…협력으로 상생해야"(연합뉴스)
3.23	매티스 美국방 "中, 조공국가 접근법 구사" 비판(연합뉴스)		
			中,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출현에 "지역내 안보상황 고려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3.17		러, 틸러슨 대북 강경방침 비판…"정치외교적 해결 외 대안없어"(연합뉴스)
	3.18		러 전문가들 "美 대북 군사옵션 있을수 없는 일…협상제개 필요"(연합뉴스)
	3.21	틸러슨 美국무, 다음 달 중순 러시아 방문 예정(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3.18	中, 센카쿠에 또 해경선 보내 日자극…美국무 방중시기 '주목'(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3.17	中-러 "달러화결제 통화동맹"...러 중앙은행, 中에 첫 해외사무소(연합뉴스)	
	3.21	러시아, 중국에 첨단 방공미사일 S-400 공급 개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3.18	러시아 "쿠릴 공동경제활동, 우리 법 적용"...반환기대 日 '머쓱'(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3. 19.

##### ■ 미국무 "한·일 핵무장 불용 입장 변함없지만 모든 옵션 검토"(연합뉴스)

- 동북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여지를 남김.
- 틸러슨 장관은 18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북아 순방에 유일하게 동행한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IJR)' 기자 에린 맥과이크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이 임박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무기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따른 결과를 매우 우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함.
- 이는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최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IJR은 해석함.

2017. 3. 20.

##### ■ 조셉 윤 "틸러슨은 매우 분명한 사드 메시지냈다"(연합뉴스)

-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서울 등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윤 대표는 이어 "사드가 순수한 방어용이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방어용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함.
- 윤 대표는 아울러 중국과 추가 대북 제재 방안으로 무엇을 논의했냐는 물음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북한이라는 도전(challenge)에 어떻게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중국과 논의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2017. 3. 21.

■ **美하원의원 “한국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해야”(연합뉴스)**

- 미국의 하원의원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보도함.
-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예비태세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위협 대응' 주제의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특히 그는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선의의 무시' 전략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평양의 독재자(김정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 3. 24.

■ **‘北핵심 타격’ 한미 키리졸브훈련 종료…미군 1만3천명 참가(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24일 끝났으며, 전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는 지휘소훈련(CPX)인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증원전력을 포함해 약 1만3천명의 미군이 참가했고, 이는 작년(약 1만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임.
- 이달 13일 시작된 키리졸브 연습은 전반부는 북한의 공격을 가정한 방어 훈련으로, 후반부는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가정한 공격 훈련으로 진행됐고, 한미 군 외에도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5개국의 소규모 병력도 참가했음.

## 나. 한·중 관계

2017. 3. 20.

■ **韓 ‘사드보복’ WTO제기에 中, 정부관계 없는 ‘민익’따른 결과 주장(연합뉴스)**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경제 조치에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 제기하자 중국이 "양국 무역은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WTO에 사드 보복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최근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한·중 간 이상적인 경제 무역 또는 각 분야의 왕래에 대해선 중국 측은 지지하는 동시에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한마디로 우리는 한·중 간 정상적인 무역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지지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함.

2017. 3. 21.

■ 외교부 "한미 6자수석, 중국과의 대북공조 중점 협의"(연합뉴스)

- 외교부는 22일로 예정된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미 행정부의 분명한 인식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약에서는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중 상세 결과를 청취하고,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 문제 등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최근 국가안보실장 방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6자수석 협의는 미 측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적 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추가 전략 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내달 초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를 앞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7. 3. 22.

■ 중국前외교차관 "한중 간 비는 오지만 거세지지 않아야"(연합뉴스)

- 방한 중인 왕잉판(王英凡)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2일 한중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관련, "비(한중 갈등)는 이미 내렸지만, 이 비가 점점 거세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왕 전 부부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후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심각하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양국에 모두

이롭다"면서 이렇게 밝힘.

- 그러나 왕 전 부부장은 간담회에서 한국의 양보만 요구했을 뿐, 중국의 무차별적인 사드 보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쳐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다. 한·일 관계

2017. 3. 21.

##### ■ 외교부 "주일대사 위안부합의 준수 발언은 정부입장"(연합뉴스)

- 외교부는 21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의 맥락에서 인터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양국간 합의로서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부산 소녀상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함.
- 앞서 이 대사는 19일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정권이 발족하더라도 합의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로 한일관계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라. 한·러 관계

2017. 3. 24.

##### ■ 러 외무부 "사드 한국 배치 심각한 역내 불안 요소" 거듭 비판(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 북한과 한국·미국 모두의 도발적 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주문하고 나섬.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미국이 중심이 된 동맹국들의 대규모 북한 공격 작전 훈련으로 점점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특히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지속적 역내 군사력 증강이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7. 3. 17.

#### ■ 中외교부 "6자회담, 북한문제에 효과적"...美에 정식 제안할 듯(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방중을 하루 앞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6자회담이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미중 회담에서 이를 제시할 뜻을 내비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유엔 특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을 재개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틸러슨 장관 방중 기간에 6자회담을 견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입장을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이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각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임.

#### ■ 틸러슨 美국무 "대북 전략적 인내 끝...中 사드보복 그만두라"(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초강력 제재·압박 방침을 천명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대 한국 보복 조치 중단과 북핵 해결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중국에 촉구함.
- 트럼프 행정부 초대 외교 사령탑인 틸러슨 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해 우리의 우방국과 논의해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말함.
- 틸러슨 장관은 "북한 위협이 이제는 지역(동북아) 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위협"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2017. 3. 18.

■ **미중 북핵해법 평행선...中‘대화해야’ vs 美,北과 대화 언급안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머리를 맞대고 북핵 해법을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에는 실패함.
-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미국은 북한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함.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확인에 그쳤음.

2017. 3. 20.

■ **中외교부 ‘미국, 대만에의 무기판매 민감성·위험성 인식해야’(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의 민감성과 위험성을 잘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공동성명 3개 원칙을 잘 견지해야 한다"며 "대만 무기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신중하게 대만 문제를 처리하고, 전반적인 미중 관계와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덧붙임.

2017. 3. 21.

■ **왕이 中외교부장 ‘미중 충돌은 모두에 실패...협력으로 상생해야’(연합뉴스)**

-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해 양국이 협력을 통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함.
- 왕 부장이 킨들버거 함정을 거론한 것은 미국의 보호주의가 세계경제를 다시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쌍궤 병행(雙軌並行)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2017. 3. 23.

■ **매티스 美국방 "中, 조공국가 접근법 구사" 비판(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2일(현지시간) '조공'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중국의 대외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함.
-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내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식의 '일종의 조공국가 접근법'(a tribute-nation kind of approach)을 채택함으로써 신뢰를 깨고 있다"고 일갈함.
- 이는 중국이 현재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양사군도)에 대한 일방적 매립공사를 통해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임.

■ **中,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출현에 "지역내 안보상황 고려해야"(연합뉴스)**

- 미군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항행한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나타나 중국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역 국가 모두 유관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미군 전략폭격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서 나가라는 경고를 무시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공식별구역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도 자신만의 방공식별구역이 있는 것처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다. 미·러 관계

2017. 3. 17.

### ■ 러, 틸러슨 대북 강경방침 비판...“정치외교적 해결 외 대안없어”(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와 의회 지도부 등은 17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미국의 6자회담 복귀거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역시 북한과의 대화 거부와 대북 압박 강화, 군사행동 불사 등의 강경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섞인 비판적 입장을 밝힘.
-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헤일리 대사의 발언과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 "우리는 북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을 보지 못한다"고 밝힘.
-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외무차관도 다음 주로 예정된 러-일 외무·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한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함.

2017. 3. 18.

### ■ 러 전문가들 “美 대북 군사옵션 있을수 없는 일...협상재개 필요”(연합뉴스)

- 러시아의 한반도 및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강경 발언으로 구체화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한 접근법에 주목하며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일제히 우려를 표시함.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에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 중국을 놀라게 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지 실질적 군사 계획 공표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 톨로라야 소장은 "최근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고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틸러슨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에선 북·미 간에 어떤 대화나 접촉도 없는 정체가 지속됐지만 이제 미국이 이 같은 정체기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오히려 기대감을 표시함.



2017. 3. 21.

■ **“틸러슨 미국무, 다음 달 중순 러시아 방문 예정”(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4월 중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앞서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7. 3. 18.

■ **中, 센카쿠에 또 해경선 보내 日자극…美국무 방중시기 ‘주목’(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순방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틀 연속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 해경선을 보냄.
- 18일 NHK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 함선 4척이 전날 센카쿠열도 일본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km 해상)에서 항해했고, 이들 함선은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남남서쪽에서 항해해 일본 해상보안본부가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함.
- 중국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부근 접속수역에 해경선 4척을 보냈고, 해경선들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구바시마(久場島) 북북서쪽 37km 지점에서 항해함.

**마. 중·러 관계**

2017. 3. 17.

■ **中·러 “달리화견제 통화동맹”…러 중앙은행, 中에 첫 해외사무소(연합뉴스)**

- 러시아 중앙은행이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첫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함.
- 드미트리 스코벨킨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전날 주중국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중앙은행 베이징 대표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소 개소가 채권 발행과 자금세탁 방지, 테러 방지책 등 중러간 구체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고 말함.

-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5월 상대국 통화 표시 채권 발행에 동의해 미국 달러화 위상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2017. 3. 21.

■ **러시아, 중국에 첨단 방공미사일 S-400 공급 개시(연합뉴스)**

- 시아가 중국에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트라이엄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의회 관계자가 20일(현지시간) 밝힘.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군수산업체 발전 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블라디미르 구테네프는 이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400 첫 번째 포대분을 최근 중국에 공급했다"고 전함.
- 중국은 2014년 러시아와 S-400 미사일 3개 포대분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까지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임.

**바. 일·러 관계**

2017. 3. 18.

■ **러시아 "쿠릴 공동경제활동, 우리 법 적용"…반환기대 日 '머쓱'(연합뉴스)**

- 1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東京) 시내에서 열린 양국 차관급 협의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외무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기초해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함.
- 쿠릴 4개섬이 러시아의 영토인 만큼 이 지역에서 일본과 공동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러시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협의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첫 발언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임.
- 러시아와 일본은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쿠릴 4개섬에서 '특별한 제도'에 근거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특별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와 양국의 법이 아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본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24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 오늘 채택...김정남 암살 간접 지적(연합뉴스)
	3.21	北, 인권문제 제기예 "한미의 반공화국 모략 소동"(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3.24	北, 드론 격추훈련 첫 실시...대북정보유입 차단 의도(연합뉴스)
	3.24	北매체, 연일 대미 인권공세...트럼프 반이민정책도 비난(연합뉴스)
	3.18	北인권단체, 김정남 암살 다큐 '드론'으로 北에 살포(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3.20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자문회의 개최(연합뉴스)
	3.21	대북인권단체, 中여류 한국인 목사 석방 촉구(연합뉴스)
	3.22	北인권자료 한곳에...통일부, 북한인권포털 개설(연합뉴스)
	3.23	외교부 "주중 北인권결의 채택될 듯...국제사회 우려 공유"(연합뉴스)
	3.24	"北 지하종교인 최대 50만명 추산...발각되면 수용소行"(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3.18	탈북여성들, 유엔서 북한의 여성 인권유린 증언(미국의 소리)
남북자 국문포로	3.23	법원, 민변이 낸 '北식당 종업원 점권소송' 판단없이 끝내(연합뉴스)
대북지원	3.22	"올해 인도적 대북지원 위해 1천280억원 필요"(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3. 24.

#### ■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 채택...김정남 암살 간접 지적(연합뉴스)

-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2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발생한 범죄들과 인권침해들(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이라는 표현으로 간접 언급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에 '해외 범죄와 인권침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문구는 김정남 사건 뿐 아니라 세계 27개국에 5만~8만명 정도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도 함께 지칭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3. 21.

#### ■ 北, 인권문제 제기 "한미의 반공화국 모략 소동"(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엔 재차 강하게 반발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인권 모략의 범죄적 정체는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 계속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해보려는 흉악한 계책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정치 철학에 기초해 인민·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정치 리념(이념)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강변함.

2017. 3. 24.

■ **北, 드론 격추훈련 첫 실시…대북정보유입 차단 의도(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들이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대북 정보 유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한이 무인기 격추를 위한 민군 합동훈련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음.
- 북한이 무인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최근 무인기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으로 떠오르고 군사적으로도 비중이 커지면서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군이 최신행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을 전북 군산에 배치하는 데 착수하자 23일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음.

■ **北매체, 연일 대미 인권공세…트럼프 반이민정책도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인권문제를 연일 거론하며 역(逆)공세를 펴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세계에 둘도 없는 추악한 인권범죄국'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맹비난하며 미국의 인권 상황을 따졌음.
-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각국의 반대에도 이민규제 강행 방침을 밝히는 것은 "오만방자한 행위"라며 "미국이야말로 인권 유린을 정책화, 법(法)화하고 강행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고 주장했다.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3. 18.

■ **北인권단체, 김정남 암살 다류 '드론'으로 北에 살포(연합뉴스)**

-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김정남 암살사건 다류멘타리를 담은 SD카드를 드론(무인비행체)을 이용해 최근 북한 지역에 살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음.
-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No Chain) 정광일 대표는 "최근 '김정남은 왜 암살됐

나'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SD카드에 저장해 북한으로 보냈다"면서 "드론을 활용해 SD카드 400장을 북한으로 들여보냈다"고 밝혔다.

- 정 대표는 "북한은 조직생활을 하는 곳이라 아이들은 마음대로 여유롭게 놀지도 못한다"면서 "SD카드에 미국 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사진도 넣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 3. 20.

#### ■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자문회의 개최(연합뉴스)

- 통일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북한인권증진 자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김형석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이달 말 수립될 예정인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올해 집행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나눴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가 추천한 10명의 민간위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조언을 받게 돼 있으며, 자문회의 개최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임.

### 2017. 3. 21.

#### ■ 대북인권단체, 中억류 한국인 목사 석방 촉구(연합뉴스)

-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증진센터는 21일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하던 한국인 목사 2명이 지난달 중국 공안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다"고 밝혔다.
- 중국에 구금된 인권활동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온성도 목사(42)와 이병기 목사(66)로 확인됐다.
- 현재 두 목사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관할 공안청 조사를 마치고 '타인의 밀출국 조직죄'라는 중국 형법상 죄명에 따라 기소돼 번시(本溪)시 구류장에 구금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7. 3. 22.

#### ■ 北인권자료 한곳에...통일부, 북한인권포털 개설(연합뉴스)

- 통일부는 22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관련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포털을 개설했음.

- 북한인권포털(www.unikorea.go.kr/nkhr)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유엔의 공식 발표 자료, 정부·민간의 연구 및 영상 자료, 최근 기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 3. 23.

#### ■ 외교부 "주중 北인권결의 채택될 듯...국제사회 우려 공유"(연합뉴스)

-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23일(이하 현지시각) 또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될 전망이다이라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왔으며, 특히 2014년부터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의 권고를 결의안에 반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강조하는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하며, 이번 결의 문안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 2017. 3. 24.

#### ■ "北 지하종교인 최대 50만명 추산...발각되면 수용소行"(연합뉴스)

-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24일 북한의 종교인 탄압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출간한 '북한의 종교 실상'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김정은 정권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최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하종교인들이 활동 중이라고 밝힘.
- 단체 대표는 "북한의 지하종교인 추산치는 국제 선교단체별로 다소 편차가 있다"면서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는 20만~40만 명,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고 있는 '순교자의 소리'는 50만 명,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호크 연구원은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3. 18.

##### ■ 탈북여성들, 유엔서 북한의 여성 인권유린 증언(미국의 소리)

- 미국 뉴욕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음.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61차 회의 병행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탈북여성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북한 여성들에게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음.
- 지난 2008년 탈북한 이소연 한국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만 명의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중국 공안의 체포 위협 속에 계속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음.
- 한편 이날 행사 뒤 탈북민들과 북한자유연합 회원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주재 중국대표부에 전달하려 했지만 대표부가 접수를 거부해 문 앞에 놓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7. 3. 23.

##### ■ 법원, 민변이 낸 '北식당 종업원 접견소송' 판단없이 끝내(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음.
-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다 지난해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더라도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음.
- 행정소송 외에도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음.

#### 5. 대북지원

2017. 3. 22.

##### ■ "올해 인도적 대북지원 위해 1천280억원 필요"(연합뉴스)

-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했음.



- UNOCHA는 지난 21일 발표한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130만 명을 포함한 1천800만 명, 북한 인구 10중 7명이 여전히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공공배급체계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또 작년 북한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배급량이 300~380g으로 1일 권장량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과 영양 결핍, 위생과 식수 부족으로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